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한 영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도자 유물의 부착장식을 모티브로 한
백자등잔 제작연구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김 묘 진

도자 유물의 부착장식을 모티브로 한
백자등잔 제작연구

한 영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 예 학 과


김 묘 진


인 준 서

김묘진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22년 5월

심사위원장 박 태 성 

심 사 위 원 김 지 관 

심 사 위 원 한 영 숙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은 과거에는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사물이었으나, 현대에는 과학의 발전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미적 탐구의 대상으로 변모하였다. 옛 도자 유물에 나타나는 부착장식을 미적 대상으로 삼아, 역사 속 유물로 기억된 백자등잔을 현대 생활공간에 맞도록 용도와 활용가치 면에서 새롭게 제작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역사 속 오랜 기간 어둠을 밝히는 조명기구로 사용되었던 등잔(燈臺)은 현대에 이르러 불빛이 주는 옛 정취와 더불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사색의 도구, 혹은 실내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리빙소품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등잔은 오랜 세월 사용되었음에도 석유를 원료로 하는 기존의 호형(壺形)등잔에서 유형이나 형태적 변화는 거의 없으며, 연료의 개선과 보조 등기구 사용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온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옛 백자등잔이 가진 원형(原型; 기본형)은 유지하되 현대의 실내공간에서 사용하기 불편한 구조적 형태를 보완하고, 옛 도자 유물의 기능적 부착장식인 고리장식과 양이(兩珮)장식을 조형 요소로 접목하여 현대에 변화된 등잔의 역할에 적합한 백자등잔을 제작하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전통등잔의 시대별 유형과 사용된 연료에 따른 형태적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등잔과 함께 사용된 보조 등기구를 용도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존 호형등잔의 구조적 불편함과 실내공간에서 등잔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3가지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등잔의 기능적 형태연구를 시도하였다. 등잔의 장식으로는 시대별 고리형태의 부착장식이 나타나는 유물의 과거 사용방식과 조선시대의 양이잔 손잡이의 조형적 특징을 고찰하여 등잔에 심미적 효과를 높이는 장식 요소로 적용하였다.

백자등잔의 제작방법으로는 등잔의 형태연구를 시도함에 있어 시작품의 다양한 형태적 변용에 유리하고, 등잔과 심지꽃이의 유격을 정밀하게 맞추기 적합한 물레성형 기법을 이용하였다. 부착장식의 경우 고리장식과 양이장식의 조형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판 성형 기법과 소형 압출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착장식의 형태를 표현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백자등잔을 중심으로 현대인이 여가생활에서 즐겨 사용하는 소품들과의 세트 구성을 통해 전통등잔의 새로운 사용방식과 현대적 활용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동기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2
II. 본론	3
1. 등잔에 대한 일반적 고찰	3
1) 등잔의 시대적 변천	3
2) 등잔의 유형	5
3) 등잔의 보조 등기구 종류	7
2. 도자 유물의 부착장식에 대한 고찰	11
1) 고리형태의 부착장식	11
2) 양이잔의 손잡이	16
3. 현대 생활공간을 위한 백자등잔 제작	18
1) 등잔 역할의 시대적 변화	18
2) 등잔의 기능적 형태연구	19
3) 부착장식의 심미적 활용	24
4) 현대인을 위한 소품세트 구성	28

4. 시작품 제작	30
1) 제작방법	30
2) 시작품 설명	32
Ⅲ. 결론	53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 표 1 】 연료에 따른 등잔의 형태적 분류	7
【 표 2 】 등잔의 보조 등기구 종류	10
【 표 3 】 토기 고리장식의 부착유형 분류	13
【 표 4 】 고리장식이 기능적으로 부착된 합 유물	14
【 표 5 】 고리장식이 기능적으로 부착된 병, 주전자 유물	15
【 표 6 】 고종 정해년 진찬의궤	16
【 표 7 】 백자 양이잔의 손잡이 형태 분류	17
【 표 8 】 전통등잔과 현대등잔 비교	18
【 표 9 】 호형등잔 구연부의 형태 분류	19
【 표 10 】 입구가 넓은 병	21
【 표 11 】 긴목 등잔 구연부의 구조	22
【 표 12 】 합형 등잔 구연부의 구조	23
【 표 13 】 고배형 등잔의 구조	24
【 표 14 】 장식형 고리장식의 종류	25
【 표 15 】 연결형 고리장식의 종류	26
【 표 16 】 양이장식의 종류	27
【 표 17 】 현대인을 위한 소품세트 구성	29
【 표 18 】 고리장식 제작 과정	31

그림 목 차

【 도판 1 】 다등식 토기 등잔, 신라, 국립중앙박물관	5
【 도판 2 】 무령왕릉 출토 등잔, 백제, 국립경주박물관	5
【 도판 3 】 유이부심발형토기, 신석기, 국립중앙박물관	11
【 도판 4 】 뚜껑 있는 바리, 가야, 국립중앙박물관	11
【 도판 5 】 쌍이운록청옥잔, 조선왕조실록, 오례/가례서례/준작2	16

시 작품 목 차

【 작품 1 】 고리장식 등잔	32
【 작품 2 】 고리장식 단지 등잔 Series	33
【 작품 3 】 고리장식 긴목 등잔	35
【 작품 4 】 쌍고리장식 긴목 등잔	36
【 작품 5 】 화형 양이장식 등잔 Series	37
【 작품 6 】 날개형 양이장식 등잔 Series	38
【 작품 7 】 향꽂이 Set	40
【 작품 8 】 양이장식 긴목 등잔 1	41
【 작품 9 】 양이장식 긴목 등잔 Series	42
【 작품 10 】 양이장식 긴목 등잔 2	43
【 작품 11 】 고리장식 합형 등잔 1	44
【 작품 12 】 고리장식 합형 등잔 2	45
【 작품 13 】 고배형 등잔 Series	46
【 작품 14 】 고리장식 다각 등잔 1	48
【 작품 15 】 고리장식 다각 등잔 2	49
【 작품 16 】 주병 Set	50
【 작품 17 】 실링스탬프 Set 1	51
【 작품 18 】 실링스탬프 Set 2	52

I. 서 론

1. 연구동기 및 목적

옛 유물은 과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유용한 사물이었지만, 현대에는 시대적 변화나 과학의 발전 등으로 인해 본래의 쓰임을 잃고 역사적 산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옛 유물 중에는 더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때로는 미적 탐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현시대의 생활공간에 맞도록 새롭게 탄생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보존적 가치가 있는 사물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찾는 것이 연구의 동기이며, 과거 도자 유물의 기능적 부착장식의 형태적 특징을 전통 등화구인 등잔(燈臺)에 장식적 조형 요소로 활용하여 현대의 생활공간에 적합한 쓰임을 갖는 백자등잔을 제작하고자 한다.

삼국시대부터 유등(油燈)형식¹⁾의 등잔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조명기구로써 사용되었지만, 긴 역사에 비해 등잔 자체의 형태적 변화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연료의 질적 개선과 보조적 역할을 하는 등기구의 개발을 통해 등잔의 실용성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착목하여 기존 호형(壺形)등잔을 기본형으로 하되 기능적인 관점에서 구조와 사용성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전기 발명 이후 등잔은 어둠을 밝히는 용도보다는 불빛이 주는 안정감과 옛 정취를 느끼기 위한 사색의 도구 혹은 실내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리빙소품으로 역할이 변모하였기 때문에 등잔의 기능적 형태와 더불어 장식적 발전이 요구된다. 백자등잔의 장식으로 활용한 도자 유물에 나타나는 기능적 부착장식은 타 재료로 제작된 연결 부속품이 유실되고 남겨진 형태로, 연구

1) 기름을 연료로 하여 불을 켜는 등.

자에게는 과거 사용법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이러한 부착장식의 고유한 형태적 미감을 백자등잔에 장식으로 적용하여 현대인의 생활공간에서의 심미적 조화와 다양한 활용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본론은 등잔의 기능적 형태연구, 부착장식의 심미적 활용 그리고 현대적 소품세트 제작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본론 1장에서는 등잔에 대한 고찰을 서술하였다. 현대의 등잔과 같은 특성의 연료를 사용하는 호형등잔을 중심으로 연료 변화에 따른 시대적 변천 과정과 등잔의 사용성을 보완하기 위해 제작된 등잔대, 실내·실외용 보조 등기구의 용도와 구조적 특징에 대해 분류하였다.

2장에서 등잔의 장식으로 접목된 도자 유물의 부착장식과 관련해서는 기능적 필요로 생성된 부착물로 범위를 정하였다. 삼국시대 토기, 고려시대 병과 주자, 시대별 합 형태의 기물에서 몸통과 뚜껑을 끈으로 연결하는 고리 형태 부착장식과 조선시대 가례(嘉禮)에서 사용되던 양이잔 손잡이의 조형적 특징에 관해 기술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중심으로 등잔이 현대에 이르러 조명의 기능보다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도구 혹은 실내를 꾸미는 리빙소품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실내에서 등잔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3가지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호형등잔의 구조를 개선한 기능적 형태를 연구하고, 고리장식과 양이장식의 고유한 형태적 미감을 백자등잔의 조형 요소로 활용하였다.

II. 본 론

1. 등잔에 대한 일반적 고찰

등잔(燈臺)이란 전통 등화구(燈火具) 중 기름을 담아 등불을 켜는 유등(油燈)형식의 그릇을 일컫는다. 본 장에서는 등잔의 시대별 용도 및 변화양상과 연료에 따른 형태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등잔의 사용성을 보완하기 위해 함께 사용된 받침대 역할을 하는 등잔대와 실내외 보조 등기구를 사용 용도와 형태에 따라 분류하였다.

1) 등잔의 시대적 변천

등잔의 기원이 언제부터인지 확실하게 근원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동·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하는 유등형식의 종지형 등잔을 삼국시대 유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²⁾ 삼국시대의 등잔은 어둠을 밝히는 등기구로서의 용도보다 종교적 성격의 부장품 혹은 일부 상류층의 전유물로 사용되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발전하면서 상류계층 중심의 귀족문화가 형성되었으며, 국교인 불교의 영향으로 권위적이고 화려한 형태의 의식용 등잔이 제작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등잔인 신라 금령총(5-6세기) 출토 다등식 토기 등잔 <도판 1> 이 있다. 4-6개의 종지형 등잔이 고배각(高盃角) 위에 올려져 있는 형태로 등잔 밑에 뚫린 구멍과 연결된 관을 통해 일정한 유량을 유지하면서 모두 같은 시간 동안 연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2) 조승연, 「불과 민속 - 불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등화구」, 『방화와 보협』 Vol.134, 2009, p.57.

또한, 백제 무령왕릉 감실에서 출토된 종지형 등잔 <도판 2>의 출토 당시 현장과 등잔에 남아 있는 그을음을 통해 부장품의 용도지만 실제로 사용되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국교인 불교의 융성으로 왕족과 함께 승려가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부상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연등회, 팔관회와 같은 불교 행사가 성행함에 따라 제례용 등기가 발전하였다. 또한, 문벌귀족들과 고위 승려들의 세련된 상층문화를 이루고자 하는 요구로 옥등잔, 청자등잔과 같이 화려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등잔이 제작되었다. 하지만, 계층 간의 격차가 두드러지던 시대적 배경과 연료의 희소로 인해 등잔은 여전히 상류층의 전유물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조의 강력한 억불숭유 정책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 불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제례용 등기구가 퇴보하고, 휴대용 등기구인 제등과 같이 유교적 미의식이 두드러지는 소박하고 간소한 형태의 실용적 등기구가 발달하였다.

1876년 석유가 수입된 이후 인화성이 강한 연료의 특성에 적합하게 고안된 심지꽃이가 있는 호형등잔과 탕기형등잔이 제작되었다.³⁾ 이전까지 등기구가 상류계층의 전유물이었다면, 연료의 보급이 안정화되고 서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등잔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등기구가 제작되었다.

가장 활발하게 제작된 것은 등잔대로 등잔을 올려놓는 등가(燈架), 높이 조절이 가능한 등경(燈檠), 벽에 거는 주등(廚燈)이 있다. 또한, 실내용 등기구인 좌등과 서재에서 책을 읽을 때 주로 사용하는 서등이 유행하였으며 등잔과 일체형인 백자 서등이 등장하였다. 백자 서등 중에는 쌍심지 등잔과 같이 조도를 높이기 위해 심지꽃이의 수를 늘려 제작하기도 하였는데 기름을 많이 소모하여 ‘부자등잔’이라는 별칭이 있다. <표 2 참고> 등기구는 문

3) 「불의 민속」, 국립민속박물관, 1996, p.174.

양과 재료에 있어 서민과 상류층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장인이 제작한 상류층의 것은 주로 금속제로 섬세한 장식과 정교한 형태가 돋보이지만, 서민의 것은 상류층의 등기구를 모방하여 구하기 쉬운 목재로 직접 제작해 투박하지만 독창적인 형태가 특징이다.

19세기 양초와 전기가 보급되면서 등잔의 사용이 급격하게 줄었지만, 현대에 들어서 등잔은 생활공간에 조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명기구가 아닌 옛 정취와 불빛이 주는 안정감을 위한 간접조명으로 사용된다.



【 도판 1 】 다등식 토기 등잔, 신라, 국립중앙박물관



【 도판 2 】 무령왕릉 출토 등잔, 백제, 국립경주박물관

2) 등잔의 유형

등잔의 기능적 형태는 시대별로 사용되었던 연료의 특성에 따라 형성되었으며, 동·식물의 기름을 사용하는 종지형 기름등잔과 호형·탕기형의 석유등잔으로 분류된다.

종지형 등잔은 삼실⁴⁾, 솜, 한지를 꼬아 만든 심지를 기름에 담가 불을 붙여 사용하는 종지 형태의 등잔으로 따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생활기를 등잔으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토기, 도기, 자기, 유리, 옥을 재료

4) 삼 껍질에서 뽑아낸 실.

로 하여 기름 9cm 내외, 높이 5cm 정도의 크기로 제작되었다. 연료는 식물성 기름인 소나무 기름, 오구나무 기름, 참기름, 콩기름, 들기름, 피마자기름과 동물성 기름인 돈지유, 우지유, 어유가 사용되었다.⁵⁾

호형과 탕기형은 19세기 말 일본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면서 나타난 형태로 인화성이 강한 연료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심지꽃이가 붙은 뚜껑으로 입구를 막은 것이 특징이다. 심지의 높낮이로 불꽃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종지형 등잔보다 빛이 밝고 장시간 연소가 가능해졌다.

1776년 농학자 겸 의관 유중림이 홍만선의 『산림경제』를 증보하여 편찬한 농업서인 『증보산림경제』에는 “참기름은 기름을 짜고 나서 오래 두면 향기가 없어지고 등불을 피워도 꺼진다. 반드시 수시로 짜서 쓰는 것이 좋다. 들기름으로 등불을 켜면 무리가 생기지 않으며 기름이 맑고 또 많이 나온다. 피마자기름은 비록 부인들이 길쌈할 때 불을 밝히기는 하지만 독서하는 데에는 알맞지 않다. 반드시 눈을 상하게 한다. 머구나무씨 기름은 등불로 쓰기에 아주 좋지만 독서 하지는 못한다. 눈이 상할까 염려된다”라고 등유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⁶⁾

또한, 『산림경제Ⅱ』 잡방편에는 “향유 1근에 등유 3냥을 넣으면 기름이 덜 닳고 쥐가 소모하는 것을 방지한다. 소금을 조금 등잔 속에 넣어두면 기름을 생감할 수 있으며 생강으로 등잔가를 문질러 주면 무리가 생기지 않는다. 소목으로 등심을 달여 별에 말렸다가 불을 켜면 불뚱이 없다.”라고 등잔을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선조들은 등잔의 사용성을 등잔 형태의 기능적 발전보다 연료와 심지를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⁷⁾

5) 한국박물관연구회, 《한국의 박물관 5》, 문예마당, 2005, p.25.

6) 이강자 외 13인 공역, 『국역 增補山林經濟』, 신광출판사, 2003, 388-391쪽을 김수경. 「朝鮮時代 燈器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p.0998 에서 재인용.

7) 민족문화추진회 편, 『산림경제Ⅱ』,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233쪽을 김수경. 「朝鮮時代 燈器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p.0998 에서 재인용.

【 표 1 】 연료에 따른 등잔의 형태적 분류

연료	동·식물성 기름	광물성 기름(석유)	
대표 유물			
형태	종지형	호형	탕기형
재료, 시대	토기, 삼국시대	백자, 조선시대	대리석, 조선시대
크기	67(w) X 25(h) mm	79(w) X 95(h) mm	90(w) X 81(h) mm
소장처	한국등잔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3) 등잔의 보조 등기구 종류

조선 후기 연료의 보급이 안정화되고 등잔이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초와 등잔을 등화구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등기구가 제작되었다. 등잔과 함께 사용하는 등기구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받침대의 기능을 하는 등잔대와 실내·실외용 등기구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등잔대

등잔대는 등잔을 올려 두고 사용하는 받침대의 기능을 하는 보조 등기구로 형태에 따라 등가, 등경, 주등이 있다. 등가는 가장 기본 형태의 받침대로 원형·사각형·팔각형 등의 하반 위에 높은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구조이다. 등경은 등잔을 올려놓는 등경걸이를 3-4개의 단급이 있는 간주에

걸어 사용하는 구조로 등간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등걸이 밑에는 기름받이를 추가로 걸어 기름의 불순물을 받치고, 20-40cm 내외로 넓은 하반에는 다른 물건을 두거나 재떨이로 사용하였다. 일반 가정용의 높이는 30-70cm 내외이며, 제례용은 120-150cm의 대형으로 제작되었다. 등가와 등경은 주로 목재·청동·철·유기로 제작되었으며 모든 계층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생활용구이다. 다만 서민층의 것은 통나무나 대나무를 깎아 거칠게 깎아 제작하여 기교 없는 소박한 멋을 느낄 수 있다. 부엌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주등은 10cm 내외의 소형 받침대로, 원형, 팔각형 등의 밑받침과 벽에 걸기 위한 홈이 있는 걸대로 구성되어 있다. 걸대 위에는 꽃·새·가옥·기하학 무늬와 같은 장식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② 실내용 등기구

실내용 등기구는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서등과 방안을 넓게 비추는 용도의 장등이 있다. 주로 나무로 뼈대로 만들고 종이와 천을 덧대는 장방형 형태로 제작되었다.

서등은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서안 위에 올려 두고 사용하는 등기구이다. 주로 얇은 목판으로 만든 상자 형태로 앞면에는 들어 여는 문이 있고, 상판에는 환기 구멍이 뚫려 있다. 작게는 25cm에서 크게는 70cm의 대형의 것까지 다양한 크기로 제작되었다. 석유가 수입된 이후에는 호형등잔과 받침대가 일체형으로 제작된 백자 서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백자 서등은 조도를 조절하기 위해 쌍심지 등잔과 같이 심지꽃이가 2-4개로 제작되기도 하였으며, 연료를 빠르게 소비하여 ‘부자등잔’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장등은 마루나 방 한쪽 바닥에 세워두고 실내를 전체적으로 비추는 용도로, 주로 왕실, 상류계층의 내실과 관가의 창헌에서 사용되었다. 다리가 있

는 가구 양식의 등기구로 70-100cm 내외의 크기이며, 외부 틀은 목재로 사방의 창문은 비단·종이·유리로 제작되었다. 정면에 있는 여닫이문을 열면 등잔의 기름이 떨어져도 안전하도록 바닥에 철판이 썩워져 있고, 하단에 있는 서랍에는 주로 인광노⁸⁾를 보관하였다.

③ 실외용 등기구










야외에서 사용하는 제등은 야간에 진행되는 의·예식용 등기구 혹은 야행시 밤길을 밝히기 위한 휴대용 등기구로 상단에 손잡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등잔을 넣어 사용하는 것으로는 등롱이 있으며, 주로 철사·유기·목재로 만든 장방형의 골격 위에 종이나 깃⁹⁾을 썩워 제작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옛 선조들이 등잔의 구조적 기능보다 연료의 질을 높이거나 사용방법을 연구하여 사용성을 개선하고자 했기 때문에 등잔이 사용된 역사에 비해 형태적인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등잔대의 기름받이, 높이 조절기능, 휴대용 손잡이를 부착하는 것과 같은 시도로 미루어 볼 때 등잔을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고, 보조 등기구 제작을 통해 사용성을 보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의 등잔 또한 외형의 디자인과 장식기법의 발전이 주를 이루고 호형등잔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등잔 형태의 기능적 개선이 요구된다.

8) 성냥.

9) 명주실로 바탕을 조금 거칠게 짠 비단.

【 표 2 】 등잔의 보조 등기구 종류¹⁰⁾

등 잔 대			
	목재 등가	목재 등경	석재 주등
등 잔 대			
	철재 등가	유기 등경	철재 주등
실 내 · 외 등 기 구			
	실내용 / 쌍심지 백자 서등	실내용 / 장등	실외용 / 등롱

10) 「우리의 불그릇 등잔」, 한국등잔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2014.

2. 도자 유물의 부착장식에 대한 고찰

도자 유물에 나타나는 부착장식이 발생한 배경으로는 기능적 필요와 장식적 표현의 욕구 그리고 제작기법 발달에 따른 시도로 추정할 수 있다.¹¹⁾ 그 중 본 연구와 연관된 기능적 역할을 하는 부착장식은 신석기시대 토기에 나타나는 손으로 쥐기 편한 형태의 돌출물에서 시작되었다. <도판 3 참고> 초기의 부착장식은 손잡이의 기능 혹은 끈을 연결하여 들어 올리거나, 벽에 걸거나, 뚜껑을 몸통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도판 4 참고> 본 장에서는 기능적 부착장식이 시대적으로 변화한 양상을 살펴보고, 고리형태의 부착장식이 기능적으로 사용되었던 유물과 조선시대 양이잔의 손잡이를 중심으로 조형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도판 3】유이부심발형토기, 신석기, 국립중앙박물관



【도판 4】뚜껑 있는 바리, 가야, 국립중앙박물관

1) 고리형태의 부착장식

청동기시대에는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곡식의 보관 및 이동에 편리하도록 저장 용기에 끈을 연결하기 위한 고리형태의 부착장식(고리장식)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초기의 형태는 기존 손잡이에 구멍을 뚫어 사용했으며,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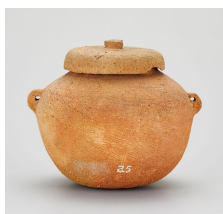







11) 백화자. 「朝國陶磁에 나타난 代着裝飾에 關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0, p.2.

형태가 다양화되고 점차 장식적으로 변모하였다. 고리장식이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초기의 유물인 삼국시대 토기의 고리장식을 중심으로 부착방식과 형태적 특징을 분류하였다. 이후 시대에서는 고리장식이 기능적으로 사용된 유물과 사용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① 삼국시대 토기의 고리장식

삼국시대 토기에 기능적 필요로 나타나기 시작한 고리장식은 손으로 잡기 위한 손잡이, 끈을 매달아 들어 올리거나, 벽에 걸거나, 뚜껑이 있는 기형의 경우 몸통에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고리장식이 달린 토기에 대한 고찰을 진행해본 결과 고리의 크기나 형태, 부착방식 등 고리장식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문헌이나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리장식의 기능과 부착방식을 <표 3> 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고리장식이 부착된 방향에 따라 종형과 횡형으로 구분하고, 구멍이 2개인 쌍고리형과 뚜껑이 있는 기물에 나타나는 고리형태인 합형으로 분류하였다. 고리형은 부착 방향과 무관하게 손잡이 기능을 하는 부착물의 경우 잔과 같은 소형의 기물은 주로 1개의 고리가 부착되었고, 단지와 항아리 같은 대형의 기물에는 양손으로 들어올리기 위해 2개의 고리가 대칭으로 적용되었다. 끈을 연결하는 기능의 부착물은 주로 2개의 고리를 기물의 어깨에 부착하며 기물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1-5개의 고리가 나타난다. 기물이 클수록 고리의 사이즈가 크거나 개수가 많이 부착되었으며, 끈을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구멍이 2개 뚫린 쌍고리형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뚜껑이 있는 기형의 경우 철기시대 김해식 토기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바리, 골호와 같이 뚜껑과 몸통이 있는 기물에 나타나는 고리장식은 주로 뚜껑 중앙에 1개 혹은 뚜껑과 몸통에 2개의 고리가 대칭으로 부착되었고, 기물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부착방식이 나타난다.

【 표 3 】 토기 고리장식의 부착유형 분류

종형				
				
횡형				
				
상고리형				
				
합형				

② 고리장식이 기능적으로 사용된 유물

삼국시대 이후 고리장식은 시대별 사회현상과 문화적 변화에 따른 미의식의 표현으로 실용적 용도보다 장식적으로 화려한 부착장식이 주로 나타난다. 역사적 사료가 남아 있는 유물 중 고리장식이 기능적인 관점으로 발전된 유물을 중심으로 형태적 특징과 용도에 따른 사용방법을 유추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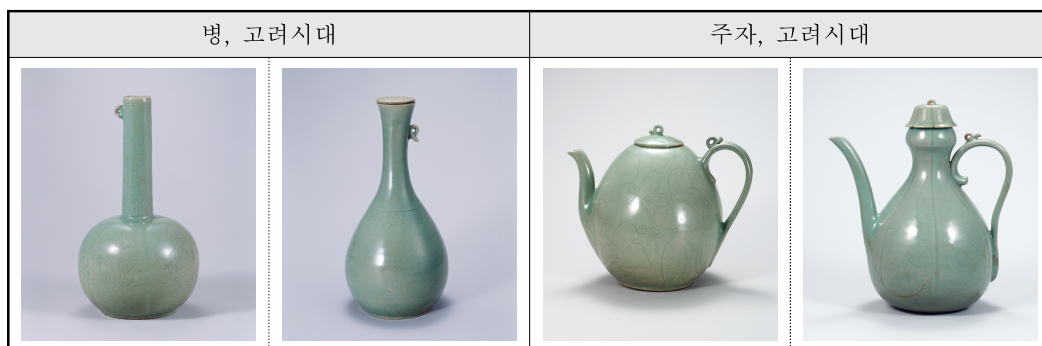
【 표 4 】 고리장식이 기능적으로 부착된 합 유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골호	네 귀 달린 항아리	태항아리

삼국시대 합 형태의 기물에는 뚜껑과 몸통을 단단하게 결합하기 위한 고리장식이 부착되었다. 이후 시대에도 합 형태의 기물에 동일한 유형의 부착장식이 나타나며, 시대별 제작방식과 용도에 따라 형태가 변모하였다. 삼국시대의 골호는 화장(火葬)을 한 뒤 뼈를 담아 매장할 때 사용하던 용기로 뚜껑과 몸통에 4개씩 부착된 고리를 철선이나 끈을 사용해 관통하여 고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의 네 귀 달린 항아리는 입구가 좁은 매병 형

태로 어깨에 4개의 고리가 부착되어 있으며, 뚜껑에는 고리가 교차하는 반원형 형태의 손잡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중요한 내용물을 항아리에 넣은 후 뚜껑과 몸통의 고리를 끈으로 묶은 후 밀봉하여 저장 및 운반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유사한 형태의 네 귀 달린 항아리가 아기의 태(胎)를 담은 백자 태항아리로 사용되었다. 조선 왕실에서는 태가 태아의 생명력을 상징하고 국운과 연관이 있다고 여겨 태를 넣은 항아리와 태지석을 함께 묶은 후 태비를 세웠다. 크기가 다른 내호와 외호로 구성된 태항아리는 뚜껑 손잡이에 구멍이 뚫려 있고, 몸통의 어깨 부분에 4개의 고리가 부착되어 있다. 태를 내호에 넣어 입구를 밀봉하여 다시 외호에 넣은 후 끈으로 단단히 묶어 봉합하여 사용했음을 고종 제8남 태항아리가 출토된 당시의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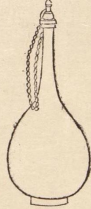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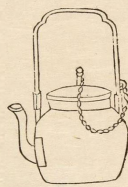

【 표 5 】 고리장식이 기능적으로 부착된 병, 주전자 유물



고려시대의 뚜껑이 있는 병, 주전자와 같은 합 형태의 기물에도 고리장식이 나타나는데 뚜껑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과 더불어 장식요소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병의 경우 몸통 측면에 1개의 고리장식이 있고, 주자의 경우 뚜껑과 손잡이에 고리장식이 1개씩 부착되어 있다. 현존하는 유물에서는 타 재료의 연결하는 줄이 유실되어 도자기에 고리 부

분만 확인할 수 있고, 고종 정해년의 궁중연향을 기록한 진찬의궤에 금속제 병과 주전자의 뚜껑과 몸통의 고리장식을 금속 줄로 연결하여 사용하던 사례를 통해 과거 사용양상을 추정할 수 있다. <표 6 참고>

【 표 6 】 고종 정해년 진찬의궤

<p>瓶銅白</p>  <p>蓋具</p>	<p>瓶銀</p> 	<p>罐茶銀</p> 	<p>瓶月日金鍍銀</p> 
백동병	은병	은다관	은도금일월병

2) 양이잔의 손잡이
















양이잔이란 조선시대에 분청사기와 백자로 제작된 잔으로 양손으로 들어 올리도록 손잡이가 대칭으로 부착된 것이 특징이다. 몸체 양쪽에 손잡이가 귀의 형상과 비슷하여 양이잔, 쌍이잔이라 불리며 앵무잔이란 별칭도 있다.



【 도판 5 】 쌍이운록청옥잔,
조선왕조실록,
오례/가례서례/준작2

조선왕조실록에서 오례 중 가례도감에 양이잔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왕실의 결혼식에서 쌍이운록청옥잔 <도판 5 참고> 이 의식용 기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몸통의 크기보다 손잡이 형태가 크고 화려하며, 손잡이의 형태로는 화형, 날개형, 복합형, 丁형이 있고 <표 7 참고> 모두 불로장생, 풍년, 다산, 부부화합, 무병장수 등의 의미를 상징한다.

【 표 7 】 백자 양이잔의 손잡이 형태 분류¹²⁾

화형			
			
날개형			
복합형			
丁형			

12)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

3. 현대 생활공간을 위한 백자등잔 제작

1) 등잔 역할의 시대적 변화

【 표 8 】 전통등잔과 현대등잔 비교

	전통등잔	현대등잔
사용 모습	 <p>투전, 성협의 《풍속화첩》, 국립중앙박물관</p>	
용도	<p>주 조명 좌식생활, 바닥에 두고 사용</p>	<p>보조 조명 및 장식용 입식생활, 가구 위에 두고 사용</p>

19세기 양초와 전기가 보급되기 전까지 조명기구로 사용되었던 전통등잔은 현대에 이르러 새로운 역할을 하는 사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 먼저, 전통등잔은 어둠 속에서 공간을 밝히는 주된 조명으로, 좌식생활을 하던 옛 선조들이 바닥에 둘러앉아 등잔을 올려놓은 등경을 곁에 두고 즐겨 사용하였던 모습을 성협의 《풍속화첩》 중 투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8 참고> 현대의 생활공간에서 등잔은 주로 차와 다과, 술과 음식이 있는 테이블 위에 두고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간접조명으로 사용되거나, 불빛이 주는 안정감과 옛 정취를 느끼기 위한 명상의 도구 혹은 실내공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용 소품의 역할을 한다.

2) 등잔의 기능적 형태연구

본 연구에서는 1876년 일본으로부터 석유가 수입되면서 함께 들어온 호형 등잔의 구조를 기본형으로 하여 구조를 변형하였다. 호형등잔은 휘발성이 강한 연료의 특성에 맞게 고안되어 연료를 채우는 몸통과 심지를 쬐을 수 있는 뚜껑(심지꽃이)이 있는 구조로 입구가 막힌 것이 특징이다. 등잔의 실질적 기능을 담당하는 심지꽃이가 몸통 안으로 끼워지는 내부형과 입구 위로 덮이는 뚜껑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9 참고> 현재 등잔의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파라핀 오일은 석유와 정제 과정만 다를 뿐 유사한 성분의 광물성 기름이기 때문에 현대의 등잔은 대부분 호형등잔과 유사한 구조로 제작된다.

【 표 9 】 호형등잔 구연부의 형태 분류

내 부 형			<p>1876년 일본으로부터 석유가 수입되면서 함께 들어온 손잡이가 달린 호형등잔으로 입구에 단이 있어 뚜껑이 밀로 떨어지지 않고, 단았을 때 뚜껑과 몸통의 바깥 면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지는 형태</p>
	백자 호형등잔, 국립공주박물관		
외 부 형			<p>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호형등잔의 형태로 심지꽃이가 입구위를 덮는 방식, 몸통의 입구가 높고 내부형과 마찬가지로 심지꽃이 굽의 높이만큼 입구에 단이 있는 형태</p>
	백자 호형등잔,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자는 기존 호형등잔의 구조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 구조적인 불편함이 있고, 실내의 공간에서 등잔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능적 형태 연구를 통해 등잔의 사용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등잔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한 점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등잔을 이동하거나, 연료를 주입할 때 기름이 쉽게 흘러넘친다.

둘째, 등잔불을 입으로 불어 끄는 경우 그을음과 연기가 발생한다.

셋째, 등잔을 사용할 때 주변 사물을 가열하거나,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존 호형등잔의 구조를 변형하여 구연부가 높은 긴목형, 뚜껑이 있는 합형, 기둥이 높은 고배형의 3가지 기능적 형태를 연구하였다.

① 긴목형 등잔

가장 먼저 시도한 시작품은 기존 내부형 호형등잔의 입구를 변형하여 제작한 형태이다. 내부형 호형등잔에는 뚜껑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ㄴ’형태의 단이 있는데, 단의 가장자리에 하나의 단을 추가로 올려 기름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제작한 시작품의 입구 형태가 사용하면서 흐르는 기름을 막아주었으나, 단의 높이가 낮고 입구의 너비가 좁아 등잔을 이동하거나 연료를 주입하기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어 발전된 형태연구를 시도하였다.

위와 같이 개선된 시작품을 토대로 입구에 기름받이 역할을 하는 구연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기존 보다 안정적인 구조의 긴목형 등잔을 제작하였다. 긴목형 등잔의 입구는 옛 유물 중 액체를 담은 병의 구연부 형태에서 착안

하였다. 참고한 병의 형태는 용도에 따라 머리와 몸에 바르는 기름을 담은 유병, 음식물을 담은 병, 술을 담은 주병, 조선시대의 위생용구 중 하나로 침을 뺄 때 사용하는 타구가 있다. 모두 액체를 담거나 따르기 편리하도록 입구가 넓고 깔대기의 역할을 하는 구연부의 외벽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표 10 참고>

구연부의 형태는 등잔 몸체 디자인과 크기에 따라 5mm에서 35mm의 다양한 높낮이로 제작하였다. 구연부를 35mm 이상의 높이로 제작할 경우 등잔의 불빛을 가리고, 제작 과정 중 굽깎기 단계에서 구연부 내부의 단을 깎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등잔의 장식 요소로 적용한 옛 도자 유물의 부착장식과 형태적 일체감을 주기 위해 구연부의 전 부분을 바깥으로 뿔족하게 늘려 빼거나, 구연부의 외벽에 1-2줄 오목한 홈을 조각하는 등 장식적인 변주를 주고자 하였다. <표 11 참고>

【 표 10 】 입구가 넓은 병

			
청자 유병	백자 철화 물고기무늬 작은 병	청화 백자 참외모양 대나무무늬 병	백자 타구
고려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생활용구/화장구	음식기/기름병	음식기/술병	위생용구/타구
4.5(w)X8.9(h) cm	5.5(w)X6.7(h) cm	12.1(w)X28.3(h) cm	7.3(w)X8.7(h) cm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 표 11 】 긴목 등잔 구연부의 구조

	시작품	단면도	설명
내부형			가장 처음 시도한 입구 형태로 기존 호형등잔 구연부에 기름을 막아주는 턱을 추가로 제작하였다.
긴목형			기존 내부형 호형등잔에 기름받이 기능을 하는 별도의 구연부를 접목한 형태로 제작하였다. 등잔을 이동할 때 혹은 연료를 주입할 때 기름이 밖으로 흘러넘치지 않고, 구연부와 몸통을 연결하는 부분에 오목한 홈을 넣어 손으로 잡기 편리한 형태로 제작하였다. 구연부의 높낮이와 너비를 다양하게 조절해 형태적 변형을 시도하였으며, 구연부 입구의 전 부분을 뾰족하게 바깥으로 빼거나 외벽에 오목한 홈을 조각해 장식적 효과를 높이려고 하였다.
			
			
			
			

② 합형 등잔

등잔을 입으로 불어 끄는 경우 불꽃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해 등잔 주변의 가구 혹은 벽지에 그을음 자국을 남길 수 있다. 합형 등잔은 <표 12>와 같이 외부형 입구의 몸체와 심지꽂이를 뚜껑으로 덮는 구조로 제작하였다. 등잔의 불을 끄기 위해 뚜껑을 닫으면 내부의 산소가 차단되면서 불이 연소되는 방식으로 실험용 알콜램프와 캔들 스너퍼(snuffer)의 구조를 참고하여 백자 합의 미감을 살린 형태로 제작하였다. 요즘 소비자들이 실내외 공기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고려해 합형 등잔의 구조를 고안하였다.

【 표 12 】 합형 등잔 구연부의 구조



③ 고배형 등잔

고배형은 조선시대 전통등잔 중 책을 읽을 때 눈높이에 맞게 몸통과 받침대가 일체형으로 제작된 백자 서등의 구조에서 착안하였다. 현대의 생활공간에서 등잔은 주로 차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는 자리 혹은 특별한 날 테이블 장식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용도를 고려하여 고배형 등잔의 경우 높은 기둥이 있

는 구조로 제작해 주변 사물을 가열하거나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적고, 장식성이 뛰어난 서양식 테이블 세팅에서 높은 촛대나 꽃장식과 같은 역할이 가능하도록 의도하였다. 등잔의 내부는 심지와 연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몸통과 기둥의 사이가 막힌 이중기 구조로 연료가 등잔의 몸통에만 담기고, 기둥의 밑단이 넓게 퍼지는 안정적인 형태로 제작하였다.

【 표 13 】 고배형 등잔의 구조

시작품	기둥의 형태	단면도
		

3) 부착장식의 심미적 활용

현대의 등잔은 전통등잔이 생활공간에서 조도를 확보하기 위한 주된 조명으로 사용되었던 것에서 변화하여 불빛이 주는 안정감과 실내공간에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리빙소품으로 주로 활용된다. 이처럼 변화된 역할을 고려해 옛 도자 유물의 부착장식 중 기능적 역할을 하던 고리형태의 부착장식(고리장식)과 양이잔의 손잡이(양이장식)를 백자등잔에 조형적 요소로 접목하여 심미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① 고리장식

고리장식은 옛 도자 유물의 기능적 역할을 하던 고리형태의 부착장식을 모티브로 장식용 고리장식과 연결형 고리장식으로 등잔에 접목하였다.

삼국시대 토기 단지에 나타나는 고리장식을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장식용 고리장식으로 활용하였다. 다양한 장식적 변주를 주기 위해 고리의 개수와 형태를 자유롭게 변형하여 등잔 몸통의 어깨 혹은 측면에 부착하였으며, 등잔의 구연부와 몸통의 외형 곡선에 어울리는 형태를 찾고자 다양한 부착방식을 시도하였다. 또한, 토기 단지의 조형적 특징을 최대한 녹여내고자 기물이 대형일 수록 고리장식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구멍이 2개 뚫린 쌍고리형을 부착하던 과거 제작방식을 시작품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 표 14 】 장식형 고리장식의 종류

		
종형 1개	종형 4개	종형 5개
		
종형 대칭	종형 대칭	쌍고리형

연결형 고리장식은 옛 유물 중 고려시대의 병, 주전자, 향아리 그리고 조선 시대의 태항아리와 같은 합 형태의 기물을 끈으로 묶어 고정하거나, 타 재료의 끈으로 연결하여 뚜껑의 분실위험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과거 사용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등잔의 몸통과 심지꽂이를 은줄로 연결하거나, 실링왁스 합을 매듭 줄로 고정하는 기능적 요소로 활용하여 심미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 표 15 】 연결형 고리장식의 종류

등 잔			
	내부형	외부형	외부형(다각)
	합		
합형 등잔		실링왁스 합 1	실링왁스 합 2

② 양이장식

조선시대 왕실의 결혼식에서 사용하던 양이잔의 손잡이를 모티브로 화형·날개형·복합형 양이장식의 고유한 형태적 미감을 등잔에 다양한 장식 요소로 활용하였다. 화형 양이장식은 입구가 내부형인 등잔의 경우 손잡이로 활용하기 위해 크기를 확대해 대칭으로 부착하였고, 긴목형 등잔의 경우 한 개 혹은 대칭으로 작게 부착하여 장식적 요소로 활용하였다. 날개형 양이장식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이장식을 크게 대칭으로 부착하였고, 등잔의 외형은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복합형 양이장식은 손가락을 걸 수 있게 구멍을 크게 뚫어 손잡이와 고리의 기능을 겸하도록 의도하였다.

【 표 16 】 양이장식의 종류



4) 현대인을 위한 소품세트 구성

최근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집의 개념이 주거의 기본역할을 넘어 휴식, 놀이, 경험을 위한 복합 생활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슬로우 라이프를 지향하는 현대인들은 기성 제품의 일률적인 디자인과 편리함보다 수공예적 가치가 있는 사물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향이나 초, 등잔과 같은 힐링(healing)을 위한 소품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수요에 대응하고자 제작된 백자등잔과 함께 현대인이 여가생활에서 즐겨 사용하는 소품을 세트로 구성하여 과거 조명기구로 사용되었던 등잔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주병세트의 경우 술과 음식이 있는 자리에서 등잔을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간접조명으로 활용하고자 장식적으로 가장 화려한 고리장식 등잔과 함께 주병과 굽이 높은 잔을 세트 구성하였다. 고리장식 등잔의 표면장식인 먼치기 기법을 주병의 몸통과 잔의 굽 부분에 동일하게 적용해 손이 닿는 표면에 요철을 주어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향꽃이 세트는 향(香)을 피워 꽂아두는 향꽃이를 백자등잔과 동일한 형태의 미니어처로 제작하였다. 향꽃이와 등잔에 양이장식을 크게 부착하여 손잡이의 기능과 더불어 실내공간에서 장식품의 역할을 하도록 의도하였다.

실링스탬프 세트는 왁스를 녹여 봉투를 봉인하거나 인장을 찍기 위한 도구로 등잔, 실링왁스를 보관하는 합, 스탬프를 세트 구성하였다. 등잔의 경우 왁스를 담아 녹이는 숟가락 형태의 멜팅(melting)스푼을 올려 두기 위해 구연부가 높은 긴목 등잔의 형태로 디자인해 등잔의 불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연결형 고리장식을 합의 뚜껑과 몸통에 적용하여 매듭끈으로 합을 고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표 17 】 현대인을 위한 소품세트 구성

	<p style="text-align: center;">주병 Set</p> <p style="text-align: center;">구성품: 등잔, 주병, 잔</p> <p>등잔의 기형과 동일한 비례로 주병과 잔을 제작해 형태적 일체감을 주었다. 장식으로는 연결형 고리장식을 부착하여 은줄을 연결하였다, 등잔과 주병의 몸통, 잔의 굽 부분에는 면치기 기법으로 표면을 조각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향꽂이 Set</p> <p style="text-align: center;">구성품: 등잔, 향꽂이</p> <p>양이등잔과 동일한 형태의 소형 향꽂이를 제작하였다. 화형 양이장식을 대칭으로 크게 부착해 손잡이의 기능과 더불어 장식적 효과를 주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실링스탬프 Set</p> <p style="text-align: center;">구성품: 등잔, 실링스탬프, 합</p> <p>실링스탬프 세트로 실링 왁스를 녹일 때 등잔불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왁스를 보관하는 합에 고리장식을 부착하여 매듭 끈으로 연결해 고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p>

4. 시작품 제작

1) 제작방법

① 물레성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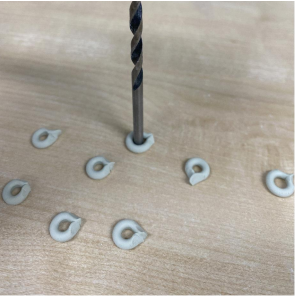
물레성형 기법은 빠르게 회전하는 물레의 원심력을 이용하여 기물의 형태를 빚어내는 전통 제작방법으로, 연구자는 백자등잔의 몸통과 심지꽃이의 형태를 성형 및 정형하는 과정에서 물레를 이용하였다. 물레성형은 기물이 건조되는 과정과 소성 시 수축하는 과정에서 형태의 변형이 적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등잔의 몸체와 심지꽃이의 유격을 정밀하게 맞추기에 적합한 성형방법이며, 기물의 두께 조절이 자유로워 기벽이 얇은 심지꽃이와 등잔의 구연부 형태를 섬세하게 성형하기 적합한 제작기법이다. 또한, 틀을 이용해 같은 형태를 복제하는 산업기법과 다르게 물레성형 기법은 동일한 제작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작업자의 의도에 따라 하나의 개체마다 형태 면에서 다양하고 섬세한 변형이 가능하므로 등잔의 구조를 개선함에 있어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였다.

② 부착장식 제작

등잔의 장식으로 사용된 고리장식과, 양이장식은 형태에 따라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양이잔의 손잡이를 모티브로 하는 양이장식은 대부분 납작한 형태로 흙을 얇은 판으로 밀어 원하는 모양을 재단하는 판 성형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양이장식이 대칭으로 부착되는 경우 양쪽이 동일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화형, 날개형, 복합형 양이장식을 도식화하여

흙판에 대고 재단한 후 손으로 가장자리를 다듬어 기물에 부착하였다. 고리장식의 경우 얇은 흙 타래를 뽑아낼 수 있는 소형 압출기를 사용하여 기물과 어울리는 크기의 고리로 제작하였는데 제작 과정은 아래 <표 18> 과 같다.

【 표 18 】 고리장식 제작 과정

<p>제작 과정</p>			
<p>설명</p>	<p>① 소형 압출기의 원형(∅ 2-5mm) 토출구를 통해 흙 타래를 압출한다.</p>	<p>② 압출 성형한 흙 타래를 원통형 막대에 감싸 고리의 형태로 만든다.</p>	<p>③ 기물의 외형 곡선에 맞게 고리를 다듬고, 흙물을 묻혀 표면에 부착한다.</p>

③ 면치기 기법

면치기 기법은 완성된 기물을 건조한 후 표면을 깎아 내는 장식기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곡률이 있는 굽칼로 20각을 오목하게 조각해 기물 표면의 요철을 주어 사용성을 보완함과 동시에 장식적 효과를 의도하였다. 은줄로 연결하는 고리장식 등잔과 기둥이 있는 고배형 등잔의 경우 장식적 역할에 초점을 두고 제작하였기 때문에 등잔과 심지꽂이 표면에 전체적으로 적용하여 심미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손잡이가 없는 고리장식 등잔, 고배형 등잔의 기둥 그리고 주병세트에서 잔의 손잡이와 주병의 몸통에 면치기 기법을 적용하여 손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2) 시작품 설명



【 작품 1 】 고리장식 등잔

백자토, 슬립 캐스팅, 매트유, 산화소성

55X52X105 mm

가장 처음 제작한 시작품으로 등잔의 기름이 쉽게 흐르는 점을 개선하고자 입구의 가림막 역할을 하는 단을 올려 제작하였다. 〈작품 1〉은 슬립캐스팅 기법으로 제작하였는데 등잔을 상품화하고 대량생산하기에는 적합하나 등잔의 형태를 일부만 수정하더라도 새로 몰드제작을 해야 하므로 향후 작품에서는 자유로운 형태적 변용에 유리한 몰레성형 기법으로 제작방법을 변경하였다.



【 작품 2 】 고리장식 단지 등잔 Series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total) 245X375X90 mm

토기의 기능적 부착장식인 고리장식을 장식적 요소로 활용하였다. 등잔의 외형 또한 고리장식이 주로 부착되었던 낮고 둥근 토기 단지 형태로 제작하고, 등잔의 사용성을 보완하기 위해 긴목형 구연부를 접목하였다. 등잔의 몸통과 어울리도록 1-5개의 고리장식을 다양한 부착방식을 통해 배치하고, 구연부의 형태를 변형하거나 높낮이를 조절해 심미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 작품 2 】 의 세부 사진



【 작품 3 】 고리장식 긴목 등잔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좌측부터) Ø120X200, 125X110X210 mm



【 작품 4 】 쌍고리장식 긴목 등잔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Ø170X180 mm

토기의 고리장식은 기물이 대형이거나 내용물이 무거운 경우 양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고리형태의 손잡이를 대칭으로 달거나, 고리와 구멍의 개수를 늘려 제작하였다. <작품 3>은 등잔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고리의 크기와 두께를 변형해 4개의 고리를 어깨에 달거나 대칭으로 적용하였고, <작품 4>는 구멍의 개수가 2개인 쌍고리형태의 고리장식을 측면에 4개 부착하였다.



【 작품 5 】 화형 양이장식 등잔 Series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좌측부터) 85X55X82, 98X67X100, 130X80X122 mm

양이장식 등잔 시리즈는 장식이 돋보이도록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몸통의 외형 곡선과 간결한 입구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작품 5〉는 화형 양이장식을 크게 부착하여 심미적 효과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손잡이의 기능을 의도하였고, 같은 비례의 등잔을 3가지 사이즈로 제작하였다. 또한,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 등잔의 크기가 커질수록 몸통 외형 곡선의 무게중심을 아래에 두고 제작하였다.



【 작품 6 】 날개형 양이장식 등잔 Series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95X95X100 mm

날개형 양이등잔은 세로로 긴 날개형 양이장식과 어울리도록 등잔의 몸통을 낮게 제작하고, 동일한 크기와 비례의 몸통 측면에 3가지 디자인의 날개형 양이장식을 대칭으로 부착해 장식적 변주를 주고자 하였다.



【 작품 6 】 의 사용 모습



【 작품 7 】 향꽃이 set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등잔) 93X60X115, (향꽃이) 65X32X50 mm

구멍이 뚫린 복합형 양이장식을 대칭으로 크게 부착하여 손잡이 기능을 겸하도록 의도하였다. 등잔과 유사한 외형 형태의 크기가 축소된 미니어처 향꽃이를 세트로 제작하여 형태적인 일체감을 주었다.



【 작품 8 】 양이장식 긴목 등잔 1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110X75X110 mm



【 작품 9 】 양이장식 긴목 등잔 Series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좌측부터) 77X63X119, 65X63X94, 72X60X82 mm



【 작품 10 】 양이장식 긴목 등잔 2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68X56X90 mm

〈작품 8〉, 〈작품 9〉, 〈작품 10〉의 백자등잔은 긴목형 구연부로 제작하여 입구의 구조가 손잡이의 기능을 겸하기 때문에 양이 장식의 크기를 축소하고, 등잔의 몸통 측면에 1개 혹은 2개의 양이 장식을 자유롭게 배치하였다. 긴목 등잔의 구연부 높이를 다양하게 시도해 등잔의 사용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작품 11 】 고리장식 합형 등잔 1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Ø100X160 mm



【 작품 12 】 고리장식 합형 등잔 2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85X70X110 mm

〈작품 11〉 과 〈작품 12〉 는 등잔의 불을 끌 때 뚜껑을 닫아 산소를 차단하여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고안된 기능적 형태로, 몸통, 뚜껑, 심지꽂이로 구성된다. 옛 유물 중 뚜껑이 있는 병, 주전자, 합과 같은 기물의 고리장식을 줄로 연결했던 사례에서 착안하여 합형 등잔의 뚜껑과 몸통을 은줄로 연결해 장식적 효과를 주었다. 뚜껑 고리장식의 경우 상면 혹은 측면에 부착하였고, 〈작품 11〉 은 몸통 표면에 면치기 기법을 적용하여 심미적 효과를 주었다.



【 작품 13 】 고배형 등잔 Series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total) 550X210X205 mm

고배형 등잔 시리즈는 전통 등기구 중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백자 서등을 모티브로 하였다. 백자 서등은 호형등잔의 몸체와 기둥이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등잔불의 높이가 눈높이에 적당하게 맞춰진 것이 특징이다. 현대의 공간에서는 등잔을 주로 테이블 위에 놓고 사용하는데 음식이 담겨 있는 식기류를 가열하거나, 화병과 같은 테이블 장식에 불이 옮겨붙을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 고배형 형태를 고안하였다. 고배형 등잔의 몸통 형태와 기둥의 비례를 다양하게 변형하고, 고리장식을 연결하는 은줄, 양이장식, 기둥의 면치기 기법 등을 적용해 장식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 작품 13 】 의 세부 사진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좌측부터) 70X66X203, Ø63X203 mm



【 작품 14 】 고리장식 다각 등잔 1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Ø65X236 mm



【 작품 15 】 고리장식 다각 등잔 2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Ø68X125 mm



【 작품 16 】 주병 set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등잔) Ø65X125, (잔) Ø60X115, (주병) Ø85X180 mm

고리장식 다각 등잔은 심지꽃이와 몸통의 전체 표면을 20각 면치기 기법으로 조각하고, 심지꽃이와 몸통에 달린 고리장식을 은줄로 연결하였다. 고배형 등잔과 마찬가지로 장식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제작하였으며, 〈작품 14〉는 몸통의 볼륨이 큰 둥근 곡선의 외형으로, 〈작품 15〉는 입구가 좁아지는 세로로 긴 비례의 형태로 변형하여 제작하였다. 제작된 〈작품 15〉를 중심으로 주병과 굽이 높은 잔을 세트 구성하였다. 위가 좁아지는 외형 곡선의 비례와 표면장식으로 사용된 면치기 기법을 주병의 몸통과 잔의 굽 부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체감을 주었다.



【 작품 17 】 실링스탬프 Set 1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합) 95X83X85, (등잔) 70X60X75 mm



【 작품 18 】 실링스탬프 Set 2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합) 102X92X76, (스탬프) Ø26X56, (등잔) 63X54X75 mm

〈작품 17〉 과 〈작품 18〉 은 실링스탬프 세트로 고리장식 단지 등잔을 실링왁스를 녹이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실링왁스를 보관하는 합과 함께 세트로 구성하였다. 실링왁스 합은 조선시대 태항아리를 끈으로 묶어 단단히 고정하였던 방법과 유사하게 뚜껑과 몸통에 고리장식을 2개씩 부착하고 매듭 줄로 연결하여 고정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합의 형태는 등잔과 유사한 외형 곡선에 부피가 넓은 형태로 제작하였다.

Ⅲ. 결 론

전통등잔은 인간의 역사 속 가장 오랜 기간 조명의 기능을 하던 등화구로, 옛 선조들의 고유한 미감과 생활양식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유산이다. 19세기 말 전기의 보급으로 등잔은 어둠을 밝히는 주된 기능을 잃었지만, 현대에 이르러 실내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불빛이 주는 안정감을 느끼기 위한 사색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변화된 생활공간에 적합하도록 등잔의 사용성을 개선하고, 등잔의 심미적 역할에 부합하도록 옛 도자 유물의 기능적 부착장식을 백자등잔에 장식 요소로 접목하여 전통등잔의 현대적 활용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등형식의 호형등잔을 기본형으로 하되, 구조적인 불편함과 실내공간에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기능적 형태를 연구하였다. 또한, 옛 도자 유물의 부착장식 중 기능적 역할을 하는 고리장식과 양이장식의 형태적 특징과 과거 사용방식을 고찰하여 백자등잔에 장식적 요소로 적용하였다.

도자 유물의 부착장식을 모티브로 한 백자등잔 제작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등잔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기능적 관점에서의 형태연구를 통해 개선하였는데, 이를 위해 전통 도자 제작방법 중 물레성형 기법을 선택함으로써 다양하고 섬세한 형태 변형을 시도하기에 적합했다. 기존 호형등잔의 구조는 이동하거나 연료를 주입할 때 기름이 쉽게 흘러넘치고, 실내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주변 사물을 가열하거나, 연기가 발생해 벽지에 그을음이 남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구연부가 높은 긴목형, 뚜껑을 이용해 불을 연소시키는 합형, 기둥이 있는 고배형을 고안하

여 현시대의 실내공간에 적합한 등잔을 제작하였다.

둘째, 도자 유물 중 몸통과 뚜껑이 있는 기물에 나타나는 고리장식을 등잔과 합에 연결형 고리장식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사용방식을 고안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양이잔의 손잡이인 양이장식의 고유한 형태적 미감을 등잔의 심미적 효과를 주는 장식으로 접목하였다. 과거에는 기능적 역할을 하던 부착장식을 핵심 조형 요소로 등잔에 적용함으로써 현대의 공간에서 등잔이 갖는 심미적 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얻었다.

셋째, 현대인의 여가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품과 세트로 구성하여 제작함으로써 백자등잔의 확장된 활용가치를 제안하였다. 등잔을 잔, 주병과 세트로 구성하여 술자리에서 간접조명 역할 혹은 라이프스타일 소품류 중 등잔불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향꽂이, 실링스탬프 세트를 함께 구성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레성형을 주된 제작방법으로 사용하였으나, 앞으로 백자등잔을 상품화함에 있어 규격화와 생산성을 위해 슬립캐스팅 기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연구과제로 고리장식을 본래의 쓰임대로 기능적 부착물로 접목하는 방법과 양이장식을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하여 심미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또한, 시작품 등잔을 직접 사용하면서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몸통 용량에 따른 등잔불의 지속 시간과 심지꽂이의 내경 너비에 따라 불꽃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향후 지속적인 연구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강경숙, 《한국도자사》, 예경, 2012
- 한국박물관연구회, 《한국의 박물관 5》, 문예마당, 2005

<학위논문>

- 김수경, 「朝鮮時代 燈器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4
- 김소연, 「조선 전기 자기 쌍이잔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20
- 백화자, 「朝國陶磁에 나타난 代着裝飾에 關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0
- 최수진, 「한국 고대 토기의 귀장식을 응용한 도자 향아리 작품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논문, 2006

<학술논문>

- 송인희, 「1609년 《영집도감미면색의궤(迎接都監米麵色儀軌)》의 중국 사신 접대 기명류(器皿類)」, 『석당논총』, Vol.0 No.64, 2016
- 조승연, 「불과 민속 - 불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등화구」, 『방화와 보험』, Vol.134, 2009

<전시도록>

- 「겸산 최영도 변호사 기증문화재」, 국립중앙박물관, 2010
- 「불의 민속」, 국립민속박물관, 1996
- 「우리의 불그릇 등잔」, 한국등잔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2014
- 「한국 고대의 토기」, 국립중앙박물관, 1997

<웹사이트>

- 국립공주박물관 (<https://gongju.museum.go.kr>)
-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 국립민속박물관 (<https://www.nfm.go.kr>)
-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
-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
- 한국등잔박물관 (<http://www.deungjan.org>)
- e뮤지엄 (<https://www.emuseum.go.kr>)

ABSTRACT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White Porcelain Oil Lamps that Use Motifs of Decorative Attachments on Pottery Relics

Kim Myojin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s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Artifacts displayed in museums were useful real-life objects in a prior era, but in the present, lifestyle changes and developments in science have caused them to become objects of aesthetic inquiry which only carry historical meaning. Using functional decorative attachments to ceramic relics as aesthetic objects, this study aimed to reproduce white ceramic lamps, which are remembered in terms of their use and value as historical relics, and make them suitable for modern living spaces.

Historically, oil lamps have long been used for illumination, but in modern times, they are emerging as “thinking tools” that provide a feeling of emotional stability along with the effects created by the light or decorations that complement the interior. Although lamps have been used for a long time, almost no change has been made in their design from the original arc-shaped petroleum lamps, while their use has increased in

response to changes in fuel or demand for accessories.

The present study aimed to produce a white ceramic lamp that was suitable in different roles in the present age by modifying their structure, which was inconvenient for use in modern indoor spaces, and attaching decorative rings and handles, which were functional and decorative attachments to ceramic relics, as modeling element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functional form of traditional lamps by examining their characteristics by era and types by fuel used, classifying accessory lamps by use, and deriving three improvements to address the structural inconveniences and ensure the safe use of the original arc-shaped lamps in indoor spaces. With regard to lamp decoration, the use of relics with ring-shaped decorative attachments by era and the modeling characteristics of the handles of double-handled cups from the Joseon Dynasty were investigated, and the results were used to create decorative elements that increased the aesthetic effect of the lamps.

Jiggering, which is advantageous when performing various morphological alterations in the investigation of the functional form of lamps and suitable for accurately adjusting the gap between the lamp and the wick holder, was used to produce white ceramic lamps. For the decorative attachments, a slab building technique and a shaping technique using a small extruder that were appropriate for shaping decorative rings and double-handled decorations were used to represent the shapes of various decorative attachments.

Based on the white ceramic lamps described above,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present new ways of using traditional lamps in a modern setting by creating sets that are appropriate for contemporary leisure activities.